



보도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5. 13.(월)

5.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논의, 정부의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 등 전반 설명
-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은 5월 13일(월)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 2,065억원과 할인지원 1,388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의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처간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박성진 (044-201-2217)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서기관 남기현 (044-201-223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담당자	사무관 윤기준 (044-200-5443)

